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3. 4. 28 편집&발행인 김중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팩스 051) 797-4810

동향

2023.4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1. 국내 항만 주요 동향	02
2. 국외 항만 주요 동향	10
3.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17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1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
- 2 인천항, 항만 하역장비 친환경 전환 완료
- 3 광양항, 세풍항만배후단지에 이차전지 소재 제조공장 건설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1 중국, 주요 항만 공컨테이너 적체 감소
- 2 미 서안 항만 폐쇄로 공급망 문제 가중
- 3 로테르담항, 컨테이너 터미널 대규모 확장 발표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1 컨테이너, 2월 정시성 전월 대비 7.7%p 증가
- 2 美,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 규정 세부지침 발표
- 3 러시아, 서방 제재 대응으로 중국과의 관계 강화 및 원유 감산 발표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신항 웅동 배후단지 새 물류창고 준공¹⁾

»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에 신규 물류창고 2개소가 준공됨

- 해당 물류창고는 부산항만공사(BPA)가 '20년 웅동 배후단지 1단계 4차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된 기업인 (주)디더블유엘글로벌과 엑세스월드부산(유) 물류창고임
- (주)디더블유엘글로벌은 부지 8만 m²에 총사업비 약 370억 원을 투자하여 4만 m²의 물류창고를 준공하였으며 엑세스월드부산(유)는 총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자하여 5만 m² 부지에 2.5만 m² 규모의 물류창고를 건축함

» 추후 4차 입주기업 중 남은 한 곳인 동원로엑스냉장투(주)의 물류창고가 건설되면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배후단지와 웅동 배후단지에는 총 69개사의 물류·제조시설이 운영될 예정임

» 한편, 웅동 배후단지에 물류창고가 신규로 건설된 것은 '17년 하반기 이후 약 5년만이며 국내 항만배후단지 중 최대 규모로 운영될 예정임에 따라 다양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활성화 도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②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²⁾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착공했다고 밝힘

- 해당 개발사업은 항만배후단지 85만 m²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민간자본 2,517억 원을 투입하여 '27년 완공 예정임
- 복합물류 및 제조시설 55만 m², 도로·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 30만 m² 조성 예정임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3.03.28.),<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9618>(2023.04.15. 검색)

2)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3.04.10.),https://www.portbusan.go.kr/board/boardView.do?MENU_ID=M0000032&CATEGORY_CD=A&selectPage=1&SEARCH_CODE=&SEARCH_WORD=&ORD_NO=12106(2023.04.15. 검색)



부산항 신항 옹동지구(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사업대상지



자료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https://www.portbusan.go.kr/board/boardView.do?MENU_ID=M0000032&CATEGORY_CD=A&selectPage=1&SEARCH_CODE=&SEARCH_WORD=&ORD_NO=12106\(2023.04.15. 검색\)](https://www.portbusan.go.kr/board/boardView.do?MENU_ID=M0000032&CATEGORY_CD=A&selectPage=1&SEARCH_CODE=&SEARCH_WORD=&ORD_NO=12106(2023.04.15. 검색))

2) 인천항

① 인천항, 항만하역 장비 친환경 전환 완료³⁾

»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장 비인 야드 트랙터(YT)와 트랜스퍼크레인(TC)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완료함

-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20년부터 YT 75대, TC 4대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총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스트래들캐리어(SC)를 제외한 항만하역장비의 친환경 장비 전환을 완료함
-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가격의 10%를 부담하고 해양수산부와 IPA가 45%씩 보조하여 사업을 추진함
- YT와 TC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80%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3.4.2.),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4217&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2023.4.6. 검색\)](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4217&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2023.4.6. 검색))



②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 공고⁴⁾

» IPA는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 모집기간을 4월 20일부터 7월 18일까지로 공고함

- 인천 신항 1-2단계는 안벽, 장치장, 이송작업에 이르기까지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는 인천항 최초의 완전 자동화 부두로 A(4,000TEU급×3선석)와 B(4,000TEU급×1선석, 개발시기 미정) 두 구역으로 나뉘어 순차 개발될 예정임
- 현재 인천신항 1-2단계 A구역은 '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부공사를 진행 중임, 운영사는 일반경쟁입찰로 선정되며, 금년도 하반기에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임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운영사는 인천신항 1-2단계 하부시설 및 상부시설 일부를 임차하고, 상부 건축물 및 자동화 장비를 투자해 인천신항 1-2단계를 완전 자동화 부두로 조성하고 향후 A와 B 구역을 통합 운영할 예정임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 (2023.4.19.),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4341&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 (2023.4.24. 검색)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위치도



3) 여수·광양항

① 광양항, 세풍항만배후단지에 이차전지 소재 제조공장 건설⁵⁾

-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주)CIS케미칼의 광양항 세풍항만배후단지 내 이차전지 소재 제조 공장 건축을 위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허가함
- 이차전지는 충전을 통해 수백회 이상 재사용이 가능한 배터리로서,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소재로 평가받고 있음
- (주)CIS케미칼은 이차전지 분야 유가금속(니켈, 코발트, 리튬 등)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공장을 세풍항만배후단지 내 신축할 예정임
- 총사업비 109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이차전지 소재산업 허브 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인재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임

② '23년도 2월 기준, 광양항 컨투두 물동량 감소⁶⁾

- »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3년 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6.3% 감소한 14만 2,906TEU를 기록함
- 수출입 및 환적 화물 모두 감소세를 보였으나, 수출입 화물(12만 5,130TEU)이 전년 동월 대비 6.2% 감소한 데 비해 환적화물은 53.1% 감소한 1만 6,959TEU를 기록함
- 이러한 컨테이너 물동량의 감소는 광양항에서 처리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발 화물이 줄어들면서 전체 물동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이는 '22년부터 이어진 중국의 경기 침체, 러·우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해 항로가 줄어든 영향으로 판단됨
- YGPA는 2월 물동량 14만 TEU 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년도 1~2월 물동량의 호조로 인해 상대적인 기저효과로 감소폭이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엔데믹에 접어드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물동량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③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올해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급⁷⁾

- » 여수청은 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9개사(21척)를 대상으로 유류세보조금 약 3억 6천 만원을 지급할 예정임
-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사업'은 '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액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임
- '22년 여수청은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한 경유 6백만 리터에 대하여 총 16억 5천 만원을 지급함
- '23년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예산은 총 23억 7천 만원으로, 여수청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누구나 분기별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5)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 (2023.03.24.)<https://yeosu.mof.go.kr/ko/board.do?menuidx=3809&bbsidx=97255>(2023.03.31. 검색)

6) 노컷뉴스(2023.03.27.)<https://www.nocutnews.co.kr/news/5916755>(2023.03.30. 검색)

7)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 (2023.04.04.)<https://yeosu.mof.go.kr/ko/board.do?menuidx=3809&bbsidx=97496>(2023.04.06. 검색)

4) 울산항

① 울산항만공사(UPA), 전국 항만 최초 개발한 '항만하역안전지수' 신뢰도 확보 노력⁸⁾

- » UPA는 국내 항만 최초로 개발한 '울산항 하역안전지수'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울산항 26개 하역사와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감
- 하역안전 수준은 그간 사고 건수로만 측정해 왔으나, '울산항 하역안전지수'는 '안전보건 예산', '안전보건 전담자', '현장 안전점검 실시', '개선 이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정량화한 객관적인 하역안전진단 측정도구임
- 워킹그룹은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부두운영사별 원시자료 확보, '22~'23년 연도별 하역안전지수 산출 및 모니터링, '23년 산재저감 결과 비교 검증 등을 시행하여 지수의 신뢰도를 확보할 계획임
- 워킹그룹에 참여한 울산항 하역사의 하역안전수준은 각 하역사별로 채점된 7가지 지표 점수에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안전-양호-보통-미흡 4단계로 구분될 예정임

② UPA, 울산항 '그린수소 물류허브 프로젝트' 발표⁹⁾

- » UPA는 3월 21일~3월 23일, 총 3일간 '2023년 월드마리타임위크(World Maritime Week)'에 참석, '그린수소 물류허브 프로젝트'를 발표함
- UPA는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비스카야주가 주관한 '2023년 월드마리타임위크(World Maritime Week)'에 참석해 울산항의 역점 추진사업인 '그린수소 물류허브 프로젝트'를 발표함
- 월드마리타임위크는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의 해양 관련 종사자들이 참가하는 국제행사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는 미래항만, 해양에너지, 해군, 어업 등 4개의 주제를 다룸
- UPA는 '미래항만' 프로그램의 주요 연사로 참가했으며, '항만 및 공공분야의 수소 관련 역할' 세션에서 울산항의 수소 탱크터미널사업에 대해 설명함
- '그린수소 물류허브 프로젝트'는 그린수소(암모니아) 수입을 위해 북신항 일대에 대규모 탱크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북신항 1단계 사업(5만 톤급 1선석, 15만 9천 m²)과 북신항 2단계 사업(5만 톤급 1선석, 2만 톤급 1선석, 19만 m²)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8)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3.03.16.),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6841\(2023.03.24. 검색\)](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6841(2023.03.24. 검색))

9)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3.03.24.),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6843\(2023.03.31. 검색\)](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6843(2023.03.31. 검색))

10)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3.04.10.), [https://ulsan.mof.go.kr/ko/board.do?menuIdx=873&bbsId=97603\(2023.04.13. 검색\)](https://ulsan.mof.go.kr/ko/board.do?menuIdx=873&bbsId=97603(2023.04.13. 검색))

③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 위험물 하역업체 합동 안전점검 실시¹⁰⁾

- » 울산청은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울산항의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위험물 하역업체 31개사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이번 집중 안전점검은 울산청, 울산해양경찰서(해양오염방제과),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울산지부 등 7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되며, 업체가 자체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소방·안전·방제장비 비치 여부, 주기적인 비상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임
- 또한, 위험물 운송 선박이 부두에 이접한 시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위험표지판·출입통제시

설 설치 여부 등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임

④ UPA, 메탄올 연료추진선박 및 연료공급 활성화 방안 모색¹¹⁾¹²⁾

» UPA와 HD현대중공업(HHI)은 3월 5일 울산항 마린센터에서 ‘메탄올 연료추진선박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함

- 메탄올은 기존 화석연료 대비 황산화물(SOx) 99%, 질소산화물(NOx) 80%,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생산과정에 따라 최대 95%까지 저감 할 수 있어 차세대 친환경 선박연료로 각광받고 있음
- 울산항은 메탄올 수입량이 연간 국내 수입량의 약 61%(120만 톤)을 처리하는 등 국내 최대 메탄올 수입·취급항만으로 상업용 탱크터미널 3개사에서 15만kl의 메탄올 저장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
- HHI는 메탄올 연료추진선 건조 세계 1위 조선사로 현재 머스크로부터 16,000TEU급 선박 등 메탄올 연료추진선 18척을 수주하여 건조 중이며 '24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임
- 이번 협약을 통해 ‘메탄올 연료추진선박 등 친환경선박 건조 및 수출 지원’, ‘울산항 및 국내 항만 메탄올 연료추진선박 운항 인프라 구축’, ‘메탄올 연료추진선박 벙커링 관련 제도 정비 및 규제 해소’ 등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함

» 한편 UPA는 ‘메탄올 벙커링 활성화 세미나’도 개최함

- 4월 11일, 열린 ‘메탄올 벙커링 활성화 세미나’에는 국내 메탄올 선박연료공급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혁신과 발전방향 등을 다뤘으며, 해양수산부, 울산광역시, 해운·조선·항만물류 관련 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함
- 참석자들은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메탄올 연료추진선 건조현장을 둘러보고, 세미나에 참석하여 ‘메탄올 벙커링 기술·안전절차 협력’, ‘메탄올 벙커링 활성화 규제혁신 및 제도정립’, ‘메탄올 공급망 구축 협력’, 기타 국내 메탄올 공급망 구축 및 벙커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함

11) 코리아워킹가제트(2023.04.07.),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7775(2023.04.13. 검색)

12) 코리아워킹가제트(2023.04.12.),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7803(2023.04.13.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경기평택항만공사, 2022년도 평택항 통계연감 발간¹³⁾

- »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14일 평택항 이용고객 및 항만 종사자 편의를 위해 '2022년도 평택항 통계연감'을 발간함
- 통계연감 발간은 평택항 이용고객 및 항만 종사자의 편의에 부합하는 맞춤형 통계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물동량 파악을 통해 평택항 활성화 전략 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공사의 평택항 항만물류 통계 고도화 사업의 일환임
- 2022년도 평택항 통계연감은 해양수산부 통합 Port-MIS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세청, 자체 수집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평택항의 수출입 품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총 8장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은 ▶전국항 운영현황 ▶평택항 총화물 처리실적 ▶평택항 컨테이너 처리실적 ▶평택항 자동차 처리실적 ▶평택항 주요현황 ▶평택항 주요 품목 수출입 관련 자료 등임
- 또한,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평택항 주요 품목인 천연가스와 곡류뿐 아니라 자동차 물동량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도 추가함

② 평택항 서부두에 수림대 조성 추진¹⁴⁾

-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당진항 서부두 일대에 수림대를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설계용역을 4월 10일 착수해 12월 5일 완료할 예정임
- 서부두 수림대는 잡화부두와 양곡부두 사이에 3만 3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임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해풍에 강한 수목을 선정해 비산먼지와 악취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도록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공사 시기는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으로 수목에 따라 심는 시기가 달라 수목 선정이 완료되면 이에 따라 공사 기간 등을 추산할 수 있기 때문임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수림대 조성은 봄철 황사에 대비하고 서부두 배후부지 내 곡물사료 화물 등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악취를 줄이며 항만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13) 경기평택항만공사 보도자료(2023.04.14.), [https://www.gppc.or.kr/cms/article/view.do?postNo=51&pageId=K006003001\(2023.04.19. 검색\)](https://www.gppc.or.kr/cms/article/view.do?postNo=51&pageId=K006003001(2023.04.19. 검색))

14) 평택시민신문(2023.04.12.), [https://www.p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201\(2023.04.19. 검색\)](https://www.p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201(2023.04.19. 검색))



6) 포항항

① 영일만항 컨테이너선 연료유 유출¹⁵⁾

» 4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에 입항한 파나마선적 9천 톤급 컨테이너선에서 저유항유가 유출됨

- 선박의 1번 탱크에서 2번 탱크로 연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연료가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됨
- 사고 이후 포항해양경찰서의 경비함정·방제정과 해양환경공단, 방제업체 등 선박 12척과 인원 127명을 긴급 동원하였고, 유회수기 및 유흡착재를 이용하여 유출된 기름 약 18㎩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됨
- 포항해양경찰서는 2일에 걸친 대응으로 폐흡착재 등 폐기물 약 2톤을 수거하였고,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힘
- 긴급방제조치는 완료되었으나, 사고선 선체 및 부두 안벽에 부착된 기름에 대해서는 선주 측 주관으로 추가적인 제거 작업을 계속할 계획임

15) 경향매일신문(2023.04.09.), <http://m.ksmnews.co.kr/view.php?idx=421075>(2023.04.21. 검색)

7) 동해·묵호항

① 동해시 1호 수소기업 북평산업단지 입주¹⁶⁾

» 동해시는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동해항 배후 북평산업단지에 4,199㎡ 규모의 수소생산 및 정제기 제조공장을 착공함

-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강씨엔티는 오는 10월 동해공장을 준공,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계획임
- 입주사는 '25년까지 3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수소생산 및 정제기(분리막), 수소(암모니아) 촉매, 탄소중립 제품 등의 생산을 목표로 함
- 입주사는 동해공장을 수소, 탄소중립 관련 제품의 주 생산공장·종합 테스트베드로 구축할 예정이며, 동해시를 기반으로 청정환경과 수소에너지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환경·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고자 함

16) 강원일보(2023.04.04.), <http://www.kwnews.co.kr/page/view/202304031163831334>(2023.04.12. 검색)



8) 목포항

① 목포시,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¹⁷⁾

» 목포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되면서 남향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과 시너지 창출이 기대됨

- 전남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특구’는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을 친환경 소재인 HDPE로 건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해상에서 실증하는 사업으로 2년간 총 200억 원(국비 120억 원 포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임

*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 결정성이 높은 고밀도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100% 재활용이 가능한 무독성 친환경 소재

- 현재 전체 소형어선 중 96%가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인체 유해물질이 발생하여 무단방치 및 폐기 시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등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기존 FRP 중심의 소형선박을 대체할 선질로 부각되고 있는 HDPE는 현행법상 구조기준의 부재로 건조 및 운항이 불가하였으나, 이번 특구지정을 통해 HDPE 소형어선의 제조 및 실증을 허용하는 특례가 부여됨
-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곳은 목포시를 비롯하여 영암 대불국가산단과 여수 국가산단, 울진산단 일원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HDPE 소형어선 제조와 해상 실증을 위한 최적의 지역으로 평가됨
- 특히 목포시를 중심으로 하는 전남 서남권은 소형어선이 집중분포되어 있어,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실증사업을 통해 친환경선박의 보급이 확대되고 전·후방 산업의 친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 목포시 보도자료(2023.04.14.), [https://www.mokpo.go.kr/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press_release/report_material?dx=511704&page=2&mode=view\(2023.04.19. 검색\)](https://www.mokpo.go.kr/www/open_administration/city_news/press_release/report_material?dx=511704&page=2&mode=view(2023.04.19. 검색))



9) 대산항

①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시설 유지보수 공사 착수¹⁸⁾

» 대산청은 대산항 항만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를 3월 말 착수함

- 대산항은 외곽시설인 서방파제, 북방파제와 계류시설인 관리부두 및 국가부두(1~5부두)를 완공해 운영 중이나 일부 부두는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바닥 포장과 상부 콘크리트 및 부대시설이 파손돼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함
- 이에 대산청은 올해 국비 2억 원을 투입해 포장 및 부대시설(안전난간, 차막이 등) 보수 등 대산항 내 파손·노후화된 항만시설물을 보수할 예정임

18) 뉴스1(2023.03.29.), <https://www.news1.kr/articles/4997881>(2023.03.31. 검색)

10) 군산항

① 군산항, '23년도 1분기 자동차 환적물동량 증가¹⁹⁾

» 자동차 전용부두 운영사인 CJ대한통운에 따르면 '23년 1분기 누적 자동차 환적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11만 3천여 대를 기록함

- 자동차 부두 운영사는 군산항 자동차 환적물동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자동차 선사의 선복량 부족과 국내 주요 항만의 야적장 포화를 꼽음
- 다만, 24년도 건조 예정인 자동차 전용 수송선 PCC(Pure Car Carrier) 약 150척이 세계적으로 공급 되면 군산항 자동차 환적물동량의 증가 추세는 다소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19) 전북뉴스(2023.4.6.), <https://www.jjan.kr/article/20230406580017>(2023.4.6 검색)

11) 마산항

① 창원시, 마산항 중장기 발전방안 비전 제시²⁰⁾

» 창원시는 4월 18일 마산항 중·장기 항만 비전 제시 및 목표체계 구축을 위한 '창원시 항만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침

- 창원시 항만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용역은 관내 항만의 구체적인 현황 조사를 통해 향후 항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와 창원시 특성에 맞는 항만 발전 방안 수립, 항만별 비전을 제시하는 것임
- 창원시는 용역 결과를 통해 그동안 부재했던 창원시 항만의 여건을 분석해 다양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충실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항만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항만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과 국가 항만정책과의 연계 등 창원시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발전 전략 방안 수립을 토대로 향후 관내 항만과 배후지역을 변화시켜갈 계획임

20) 국민일보(2023.04.18.), <http://news.kmb.co.kr/article/view.asp?arcid=018172990&code=61121111&sid1=soc>(2023.04.20. 검색)

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 항만 대체를 위해 아시아 신흥국 항만 개발 투자 필요²¹⁾

- » 최근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제조업 공장 일부를 중국에서 인도 및 동남아시아로 옮기고자 하는 기업이 증가함
- » 그러나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제조공장의 이전뿐만 아니라 해당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항만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밝힘
 - UN은 상품의 대부분이 해상 운송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데 인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동서항로의 상품을 운송하는데 필수적인 대형 항만이 중국에 비해 부족하다고 밝힘
 - 중국은 1만 4천 TEU급 컨테이너선을 처리할 수 있는 76개의 항만이 존재하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31개에 그침
- » 따라서 중국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신흥 시장의 항만 인프라 개발에 많은 투자가 필요함
 - 전문가들은 새로운 터미널을 건설하는데 일반적으로 최대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공급망 재편이 느리게 발생하거나 혹은 장기적으로는 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함
 - 중국 역시 아시아로 이동할 기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기회를 찾거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신흥국 시장 인프라 투자에 이미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임
- »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계획이라 밝힘
 - '22년 중국의 코로나 봉쇄 당시 유럽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25%가 현재 또는 계획 중인 중국 투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 이러한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인프라 경쟁력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내 항만 ODA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국내 기업 및 항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임

21) Financial Times(2023.04.03.),<https://www.ft.com/content/a7c2b2f6-e106-436d-a599-cfcc69d18b05>(2023.04.15 검색)

② 중국 주요 항만 공컨테이너 적체 감소²²⁾

» 업계 관계자들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지속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중국 주요 항만에 쌓여있던 공컨테이너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힘

- 광둥성에 위치한 선전항의 경우 공컨테이너 수가 지난 2월 최고치 대비 크게 줄어들면서 현지 항만 운영사들의 1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다고 밝힘
- 닝보-저우산항 역시 지난 3월 초 공컨테이너 수가 47만 개에서 약 6만 개 가량 감소했다고 밝힘

» 산둥항 그룹 관계자에 의하면 2월 누적 산둥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 이상 증가하였으며 3월 역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산둥항 그룹 항만별로 칭다오항이 12.3%, 르자오항이 16.7%, 옌타이항이 17.7% 증가세를 기록함
- 산둥항은 기계 장치에서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출되는 광범위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 상하이 국제 해운연구센터에서는 수출 회복은 민간 기업들이 해외 주문을 확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지방 정부가 용선(charter)한 선박 영향일 수도 있다고 밝힘

- 또한 여전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지정학적 갈등, 기타 글로벌 이슈 등을 고려하면 수출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효과가 3월 이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 항만도 중국과의 교역량 회복이 기대됨

22) Global Times(2023.04.10.),<https://www.globaltimes.cn/page/202304/1288815.shtml>(2023.04.15 검색)



2) 아시아

① 말레이시아 정부, Port Klang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메가포트 개발에 280억RM 투입 결정²³⁾

-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에 따르면 한화 약 8조 3천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여 Carey Island에 신규 항만을 건설할 예정임
-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 항만을 확장하고 있는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주변 경쟁국들 대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메가포트 개발을 추진함
- 2017년 물동량 수요 부족으로 보류되었으나 최근 말레이시아 내 산업 확장으로 항만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재추진되고 있음
- 신규 항만은 약 3,600만 TEU를 처리할 수 있는 메가 포트 항만으로 일반화물 처리용량도 약 4천만 톤에 이르는 규모로 건설 될 예정임
- 현재 포트클랑항만은 약 1,320만 TEU를 처리(2022년 기준), 일반화물은 연간 2,700만톤 처리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관계자들은 인근에 입지한 싱가포르항만이 항만시설 용량을 6,500만TEU로 두 배 이상 늘리는 것에 주목하며 말레이시아 항만시설의 증설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임

② 일본, 방글라데시 내 인도에 대한 공급망 허브 개발 계획 제안²⁴⁾

- 일본은 인도 북동부와 네팔, 부탄에 대한 공급망을 갖춘 산업 허브를 방글라데시에 개발할 것을 제안함
- 일본은 지난 3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인도 방문 당시, 벵골만과 인도 북동부의 지역 개발을 위해 방글라데시에 새로운 산업 허브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바 있음
- 이후 일본은 인도의 트리푸라(Tripura)주를 포함한 인접 내륙국가들, 더 넓게는 국제 시장과 연결할 수 있도록 마타르바리(Matarbari)에 상업항구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방글라데시에 지원하기로 함
- 일본은 해당 상업항구가 '27년에는 정상 운영되고, 향후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와 인도의 내륙 지역을 연결하는 산업 중심지를 건설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③ MSC, 유럽항로의 수출 경쟁력 개선 위해 인도 Ennore항 직항노선 추가²⁵⁾

- MSC는 올해 6월부터 Australia Express Service(AEX)의 서쪽 구간에 있는 인도 Ennore항에 직항 노선을 추가할 예정임
- 해당 노선은 MSC 고객을 위해 유럽 항만으로의 수출 연결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호주와 싱가포르에서 직접 수입노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AEX 노선은 Ennore-Colombo-Gioia Tauro-Valencia-London Gateway-Rotterdam-Hamburg-Antwerp-Le Havre-Fos Sur Mer-La Spezia-Gioia Tauro-Pointe De Galets-Port Louis-Sydney-Melbourne-Adelaide-Fremantle-Singapore-Ennore 임
- 운송시간은 Ennore에서 Gioia Tauro까지 18일, 발렌시아까지 21일, 런던 게이트웨이까지 28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Ennore항에는 6월 9일 첫 입항을 할 예정임

23) The STRAITS TIME(2023.4.12.),<https://www.straitstimes.com/asia/se-asia/malaysia-plans-84-billion-port-to-keep-up-with-regional-competitors> (2023.4.13 검색)

24) REUTERS(2023.04.12.),<https://www.reuters.com/markets/emerging/japan-proposes-industrial-hub-bangladesh-with-supply-chains-india-2023-04-11/> (2023.04.13. 검색)

25) Port Technology(2023.04.12.),<https://www.porttechnology.org/news/msc-adds-indian-call-to-enhance-australia-express-service-connections/> (2023.04.13. 검색)

3) 미주

① 포트아메리카(Ports America), 걸프포트(Gulfport) 컨테이너 터미널에 4,300만 달러 투자²⁶⁾

» 미시시피주 걸프포트 항만청은 포트아메리카와 장기 임대 및 운영 계약을 체결함

- '22년 9월, 걸프항과 포트아메리카는 항만물동량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Letter of Intent)를 체결함
- 계약기간은 20년이며, 포트아메리카는 계약을 10년씩 추가 2회 연장할 수 있게 됨
- 계약에는 포트아메리카는 항만 내 비어 있는 4터미널 38에이커에 4,300만 달러를 투자하여 화물처리 터미널로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신규 물동량 유치, 일자리 등의 효과가 기대됨

② 조지아주 항만청(GPA), 서배너(Savannah)항에 하이브리드 겐트리크레인 55대 구입²⁷⁾

» GPA는 컨테이너터미널 재정비의 일환으로 서배너항 오션터미널에 1억 7천만 달러를 투입하여 하이브리드 RTG(Rubber Tyred Gantry crane) 55대를 구입할 계획임

- 신형 하이브리드 크레인인 기존 디젤 크레인에 비해 배출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대당 연평균 4,000시간의 작동하는 경우 크레인당 127톤, 55대 전체로는 연간 약 7,000톤의 배출을 감축할 수 있음
- 연료소비가 약 47% 감소하면서 연간 160만 달러 이상의 연료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
- 새로운 크레인인 높이 6단, 폭 7개 크기로 현재 GPA의 가장 큰 RTG보다 컨테이너 한 개를 더 놓을 수 있는 넓이임

③ 롱비치항, 5,500만 달러 규모의 G부두 개선사업 완료²⁸⁾

» 롱비치항과 50년 이상 롱비치항에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ITS(International Transportaion Service)는 5,500만 달러가 투입된 G부두 개선사업을 완료함

- 사업 완료로 ITS에는 최대 16,000TEU급 컨테이너선의 접안이 가능해졌으며, 터미널의 효율성이 개선됨
- 사업을 통해 약 75m(246ft) 규모의 안벽을 추가하고 광범위한 준설 작업을 진행했으며, 터미널의 저장 용량을 늘리는 등 부두 인프라를 강화함
- 또한, 정박 중인 선박을 위한 선착장, 배수시스템, 조명, 펜스 및 간판 등을 설치할 예정임

26) Port Technology(2023.03.23.),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s-america-inks-43-million-investment-in-gulfport-container-terminal/>(2023.03.24. 검색)

27) Port Technology(2023.03.28.),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savannah-purchases-55-hybrid-yard-cranes/>(2023.03.31. 검색)

28) Port Technology(2023.03.29.),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long-beach-its-complete-55-million-pier-upgrade-project/>(2023.03.31. 검색)

④ 미 서안 항만 폐쇄로 공급망 문제 가중²⁹⁾

- ▶ 태평양해사협회(PMA)는 4월 7일 저녁부터 LA항과 롱비치항의 근로자 상당수가 출근하지 않아 사실상 항만이 폐쇄되었다고 언급함
- 특히, 롱비치항은 인력 부족 때문에 항구의 6개 터미널 중 4개를 임시 폐쇄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PMA는 '서안 항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동안 및 걸프지역 항만으로의 물동량 전이를 가속화 할 우려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함
- 반면,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ILWU)은 근로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굿프라이데이(Good Friday) 연휴를 지킨 것이라며 PMA의 주장을 부인함
- 노조원들은 기존 협약이 '22년 7월 1일 만료되어 계약 없이 일하고 있으며, 노동쟁의 장기화로 인해 주요 화주들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동안과 멕시코만 항만을 이용하고 있음
- ILWU와 PMA는 최근 주요 협상 난점에 대해 잠정 합의를 도출했으며 계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계약 문제가 올해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29) Port Technology(2023.04.11.),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west-coast-ports-shutdown-adds-to-supply-chain-woes/>(2023.04.13. 검색)

4) 유럽

① 로테르담항, 컨테이너 터미널 대규모 확장 발표³⁰⁾

- ▶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 APM Terminals는 로테르담항 Maasvalakte II 터미널에 47.5헥타르의 부지와 1,000미터 길이의 부두를 확장한다고 발표함
- 부두 확장은 '24년 중순에 완료, '26년 하반기에 운영이 시작될 계획이며, 이번 확장으로 터미널 하역능력이 약 200만 TEU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APM Terminals는 해당 터미널을 '15년부터 완전 자동화 시설 및 탄소 배출량 제로로 운영하고 있으며, 확장되는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임
- 해당 부지 중 18.5헥타르는 머스크에 이미 임대되었으며, '24년에 개장할 크로스도크 및 냉장창고 시설 개발을 위해 활용될 예정임

② 스페인, IMO에 STS 환적 관련 조사 강화 요청³¹⁾

- ▶ 스페인은 인근 해역에 제재되지 않은 유조선 STS(Ship-to-Ship) 환적 선박의 수가 증가하고 오염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IMO에 더 엄격하고 면밀한 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함
- 스페인의 지중해와 대서양 연안 지역은 STS로 알려진 선박 간 원유·석유 환적의 허브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판매에 대한 제재와 이란 석유 수출 증가의 결과로 지난 몇 년 동안 STS의 규모가 더 커짐

30) Port of Rotterdam(2023.03.31.), <https://www.portofrotterdam.com/en/news-and-press-releases/port-of-rotterdam-authority-and-apm-terminals-sign-the-agreement-for-the>(2023.04.13. 검색)

31) Reuters(2023.04.01.),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spain-calls-tougher-enforcement-oil-transfers-sea-2023-03-31/>(2023.04.06. 검색)

- 이에 따라 이 선박들과 관련된 좌초, 충돌, 준사고(near-miss) 등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22년에는 최고치를 기록함
- 마드리드는 이미 관할 해역 내 STS 환적에 관한 규칙을 강화했으며, 해역 밖에서의 STS 작업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조사와 규제를 진행할 것을 촉구함

③ 프랑스 정유소 및 항만 노동자, 한 달 만에 파업 취소³²⁾

- » 프랑스 정제시설 및 항만 노동자들이 한 달간 이어진 파업을 취소하였고, 프랑스 원유처리시설이 재가동되고 해상 운송 적체가 해소되기 시작함
- 글로벌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인 토탈에너지, 엑슨모빌 등 여러 기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중단함에 따라 정유소와 석유화학 공장들의 가동이 재개되었고, 항만에서 대기하고 있던 VLCC 등 유조선이 하역을 시작함
- 파업은 3월 6~7일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마르세유항의 포오-라베라항과 르아브르 북부 항만에서 원유 및 제품 수입이 거의 중단되었음
- 이에 따라 프랑스가 보유한 석유제품 재고에서 상당한 사용량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됨

32) Argus(2022.04.11.), <https://www.argusmedia.com/en/news/2437913-french-refinery-dock-strikes-end-crude-unloading?backToResults=true>(2023.04.12.검색)



5) 오세아니아

① DP월드, 호주 시드니항에 냉장 컨테이너 일원화 시설 개장³³⁾

- » DB월드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로 배송되는 냉장 식품의 품질과 신선도를 보장하고 배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냉동 컨테이너 일원화 시설인 리퍼월드(Reefer world)를 개장함
- 리퍼월드는 배송 전 식품과 냉장 컨테이너의 세척, 검사 및 수리 등 다양한 배송 전 준비 절차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함
- 이 시설은 매일 100개 이상의 리퍼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의 세척 및 수리 이외에도 통관 및 보관 서비스 제공해 컨테이너 통관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② 호주 멜버른항, 컨테이너 운송 전용 도로 개통³⁴⁾

- » 멜버른항의 철송 개선 프로젝트(Port Rail Transformation Project)의 일환으로 새로운 컨테이너 운송 전용 도로인 인터모달 웨이(Intermodal way)를 개장함
- 이 전용도로는 Dock Link Road와 Mullaly Close/Coode Road를 연결하여 컨테이너 운송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단 없는 항만 내 컨테이너 이동을 목표로 함
- 철송 개선 프로젝트는 Swanson Dock East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에 새로운 철도 터미널 건설이 포함되며 철도 터미널에는 600미터 길이의 열차 2개와 일반 사용자를 위한 철도 인프라 개선이 포함됨
- 멜버른항은 인터모달 웨이가 항만에서 해상, 철도 및 도로 운송의 융합을 위한 중요 시설임을 강조함

33) Port technology(2023.03.29.),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dp-world-opens-one-stop-refrigerated-container-facility-in-sydney/> (2023.04.22. 검색)

34) The daily cargo news(2023.04.11.), <https://www.thedcn.com.au/news/ports/port-rail-transformation-project-reaches-milestone/> (2023.04.15. 검색)

6) 아프리카

① 이집트 포트사이드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확대³⁵⁾

- » 수에즈운하경제구역총국(SCZone, The General Authority for Suez Canal Economic Zone)이 수에즈운하컨테이너터미널(SCCT, Suez Canal Container Terminal Company)과 포트사이드항의 물동량 유치를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 적용을 결정함
- 인센티브의 골자는 포트사이드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의 총 톤수와 컨테이너 선복량에 따라 컨테이너 선박에 부과되는 접안료 및 도선료를 차등화하는 것임
- SCZone과 SCCT는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 적용으로 인해 포트사이드항에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물동량 증가를 촉진하여 양사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35) Zawya(2023.03.29.), <https://www.zawya.com/en/economy/north-africa/sczone-scct-to-boost-trading-movement-in-east-port-said-port-xidczfpm> (2023.04.21. 검색)

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① '23년 1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년 대비 4.5% 감소³⁶⁾

» '23년 1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2.6%, 전년 동월 대비 4.5% 하락한 100.9p를 기록함

- 1월 마지막주에 시작된 중국 춘절 영향으로 대중국 물동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중동 및 남아시아 지역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함
- 특히 중국 선전항의 경우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면서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상하 이항은 약 13% 감소함
- 북미 지역의 경우 전월 대비 0.6%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LA항과 LB항의 '23년 2월 처리량 감소 예상으로 계속 하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지속으로 전월 대비 3.0%,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한 96.1p를 기록함

36) Drewry, <https://www.drewry.co.uk/maritime-research/maritime-research-related-content/port-throughput-indices>(2023.04.15. 검색)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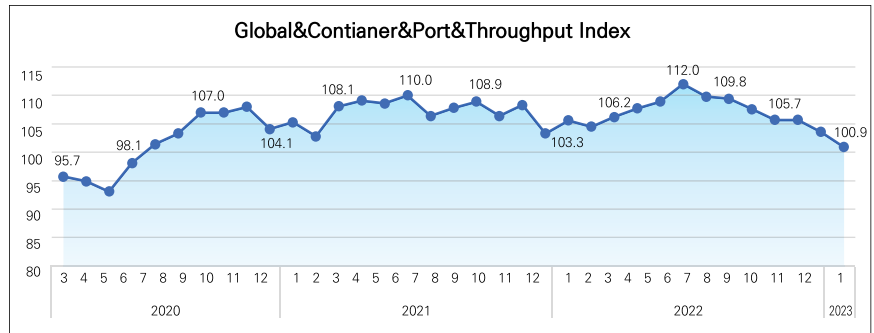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지역	2022년	2022년	2023년	전월대비	전년 동월 대비
	1월	12월	1월		
Global	105.6	103.6	100.9	-2.6	-4.5
Greater China	104.4	104.9	101.7	-3.1	-2.6
Asia(excl. China)	105.4	102.7	99.2	-3.4	-5.9
Middle East&South Asia	106.4	110.4	110.3	-0.1	3.7
Eroupe	104.8	99.1	96.1	-3.0	-8.3
North America	107.3	95.0	95.6	0.6	-10.9
Latine America	114.6	119.4	112.4	-5.9	-1.9
Africa	105.6	104.9	100.4	-4.3	-4.9
Oceania	101.9	100.5	97.7	-2.8	-4.1

주: 2019년 1월=100

자료: Drewry(<https://www.drewry.co.uk/maritime-research/maritime-research-related-content/port-throughput-indices>)

전 세계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 처리지수



자료 : Drewry(<https://www.drewry.co.uk/maritime-research/maritime-research-related-content/port-throughput-indices>)

② '23년 2월 컨테이너 정시성 전월 대비 7.7%p 증가³⁷⁾

- » 공급망 혼잡이 완화되면서 컨테이너선 정시성이 '20년 9월 이후 처음으로 60%대를 회복함
- 선사별로 살펴보면 머스크와 MSC가 각각 64.9%, 64.4%로 가장 높은 정시성을 기록함
- 그 외 선사들도 모두 50%~60%대 수준의 정시성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37) Seatrade Maritime(2023.04.05.),[https://www.seatrade-maritime.com/containers/container-line-schedule-reliability-improves-dramatically-feb\(2023.04.15.](https://www.seatrade-maritime.com/containers/container-line-schedule-reliability-improves-dramatically-feb(2023.04.15.) 검색)

- » 2월 정시성이 크게 개선되었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75%)까지 회복하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2) 양곡

① '22년 우리나라 식량안보지수는 67.6으로 세계 10위 기록³⁸⁾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G20 국가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식량안보지수를 개발하여 발표함
-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 국가(19개 국가)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 67.6으로 10위를 기록, 식량 수출국 이면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호주, 캐나다, 미국 등)들이 상위 그룹을 차지함
- 식량 수입국인 소독 수준이 높지 않은 국가들(터키,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이 하위그룹으로 평가되었음
- 국가와 및 연도별로 식량안보지수 비교가 가능하도록 G20 국가 중 2020년 기준 1위 국가였던 호주의 식량 안보 수준을 100으로 설정함
- 중국은 곡물 자급률 및 재고율이 높아 우리나라보다 높은 70.8점을 기록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68.4점임

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동향 (2023.4.6.),http://www.krei.re.kr:18181/board/quarter/view/wr_id/7150, (2023.4.6 검색)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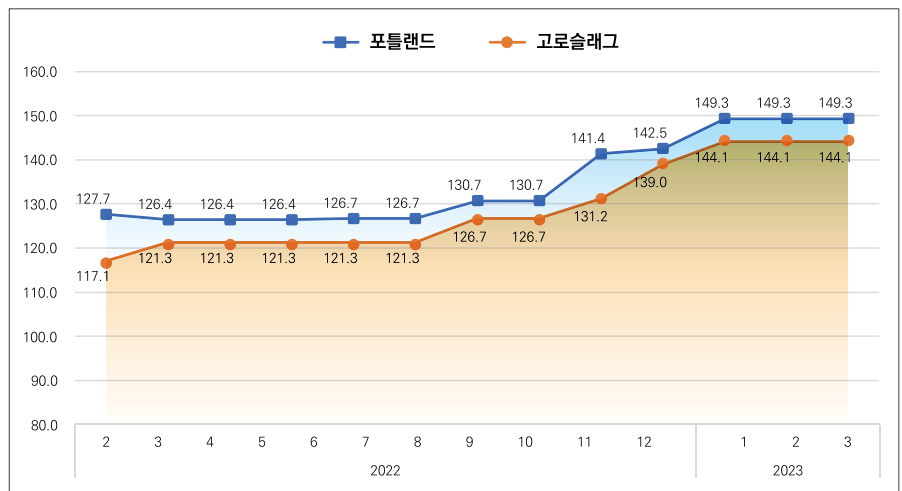
① 3월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포함세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149.3p, 144.1p를 기록, 포틀랜드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17.0% 증가,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23.0% 증가함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3년 1월 이후 3개월 동안 증감없이 포함세를 보임

(단위: 2015년 = 100기준)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27.7	126.4	126.4	126.4	126.7	126.7	130.7	130.7	141.4	142.5	149.3	149.3	149.3	0.0	17.0
고로슬래그	117.1	121.3	121.3	121.3	121.3	121.3	126.7	126.7	131.2	139.0	144.1	144.1	144.1	0.0	23.0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3.04.23.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3.04.23. 검색))



②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시멘트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논의³⁹⁾

- »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4월 11일 6개 시멘트 제조사, 한국시멘트협회와 수도권 지역 시멘트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짐
- 한국철도공사와 시멘트 업계는 화차가 도착하면 저장시설인 사일로(Silo)에 시멘트를 내리고 빈 화차를 다시 생산지로 보내는 시간을 단축해 철도수송량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함
- 코레일은 지난달 원활한 시멘트 수송을 위해 수도권 3개 열차에 대해 운행 횟수를 주 16회에서 21회로 확대함
- 시멘트 제조사는 자사 소유의 사유화차 중 안전 운행에 문제없는 차량을 선별해 노후 부품을 교체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올해 안에 345칸을 추가 투입할 계획임
- 또한 올해 100칸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1,200칸의 신규 화차를 제작·투입해 수송량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임(신규 화차 제작 계획: '23년 100칸, '24년 400칸, '25년 300칸, '26년 200칸, '27년 200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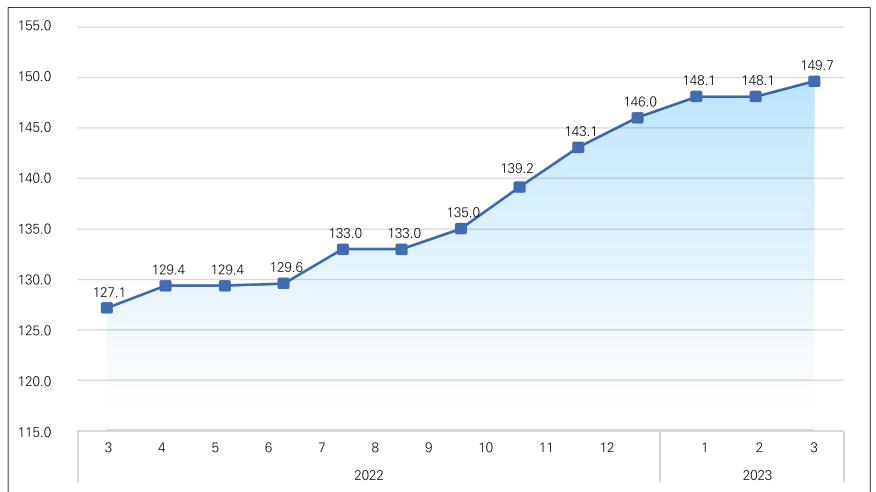
39) 한국건설신문(2023.04.18.),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557>(2023.04.22 검색)

4) 모래

① 3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1.0% 증가한 149.7p 기록

- »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7% 증가, '22년 9월 이후 '23년 3월까지 7개월간 꾸준히 증가함

(단위: 2015년 = 100기준)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27.1	129.4	129.4	129.6	133.0	133.0	135.0	139.2	143.1	146.0	148.1	148.1	149.7	1.0	17.7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Path=12(2023.04.22. 검색)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② 인천시, 굴업·덕적해역 인근 2,968만 m³ 바다골재 채취예정지 지정⁴⁰⁾

» 인천시가 굴업·덕적 해역 7개 광구를 향후 5년간 2,968만 m³의 모래와 자갈을 캘 수 있는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로 신규 지정함

- 지난해 9월 30일 허가 기간이 끝난 기존 선갑 해역 7개 광구 954만 m³, 채취량 1,785만 m³ 지정 해제함
- 신규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인 굴업·덕적 해역 7개 광구의 바다골재 부존량은 5억 2,768만 m³, 가채 매장량은 4억 8,939만 m³로 명시됨
- 골재채취 예정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골재채취 허가 시 종료 날짜 확정)이며 연도별 채취 예정 물량은 1차년 480만 m³, 2차년 595만 m³, 3차년 672만 m³, 4차년 629만 m³, 5차년 590만 m³임
- 예정지 위치 및 면적, 연도별 채취 예정물량 등은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및 골재채취 허가 시 변경될 수 있음
- 웅진군의 골재채취 허가는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 완료 이후 예정지(광구)별 및 연도별 채취 예정 물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해역이용협의 조건을 이행해야 함

40) 인천인뉴스(2023.03.17), <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308>(2023.04.18 검색)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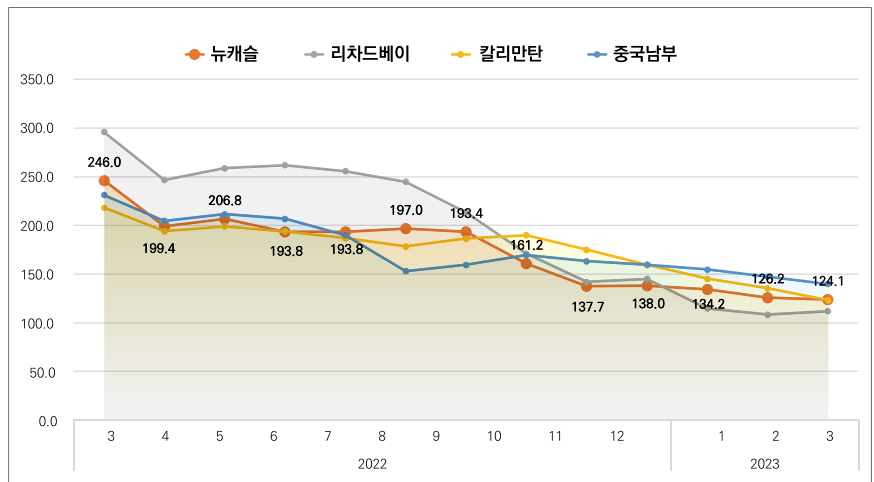
① '23년 3월 기준 유연탄 가격은 하락세를 기록⁴¹⁾

≫ 호주 뉴캐슬산(5,500kcal/kg, NAR) FOB기준 연료탄 3월 평균가는 124.12달러로 전월 대비 1.6% 하락세를 기록함

- 지역별 연료탄 가격은 호주 뉴캐슬산 1.6% 하락,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산 9.0% 하락하였으나, 남아공 리차드베이산은 3.4% 상승함(전월 대비 기준)
- 유연탄 가격 하락세의 주요 원인은 국제유가 하락과 더불어 계절성 수요 둔화 및 중국의 경기지표 부진 등으로 연료탄 가격하방압력이 발생함

41)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res.net/komis/trend/strategy/resources/trendRead.do?se_cd=157\(2023.04.24. 검색\)](https://www.kores.net/komis/trend/strategy/resources/trendRead.do?se_cd=157(2023.04.24. 검색))

유연탄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246.0	199.4	206.8	193.8	193.8	197.0	193.4	161.2	137.7	138.0	134.2	126.2	124.1	-1.6	-49.5	
리차드베이	296.1	247.0	259.1	262.1	256.0	245.1	213.9	171.0	142.2	145.2	114.9	108.5	112.2	3.4	-62.1	
칼리만탄	218.4	194.3	199.2	194.0	187.0	178.5	186.5	190.1	175.3	159.6	145.5	135.5	123.3	-9.0	-43.5	
중국남부	231.4	204.8	211.6	206.9	190.1	153.2	159.6	169.8	163.4	159.9	155.0	147.7	140.1	-5.1	-39.5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② 강릉안인화력발전소, 1, 2호기 사업기간 연장⁴²⁾

- » 올해 3월로 예정되었던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시행기간이 12월로 약 9개월 연장됨
- 강릉안인화력발전소는 총사업비 5조 6,000억원을 투입하여 '18년 3월 착공하였으며, 강릉에코파워(시행사), 삼성물산(시공사), 한국남동발전(운영사)이 참여한 건설사업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강릉안인화력발전소 1, 2호기 건설사업 시행기간을 '23년 12월까지 변경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고 이를 12일 고시했다고 밝힘

③ G7 회의, '30년 석탄폐지 안전에 합의 실패⁴³⁾

- » G7이 재생에너지 개발 및 단계적 화석연료 폐지에 합의했으나, '30년까지 석탄을 폐지하는 안전에는 끝내 합의하지 못함
- 공동성명에 따르면, '50년까지 에너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포집기술 사용없이 화석연료를 중단하는 '완전한 단계적 화석연료 폐지'에 합의함
- 그러나 '30년 단계적 석탄 폐지안은 지지하지 않고 가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문을 열어둠
- 즉, '30년이 아닌 지난해 목표치인 '35년까지 전력부문 탈탄소 달성에 합의함

42) 이투뉴스(2023.04.16.),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896>(2023.04.20. 검색)

43) 뉴스트리(2023.04.17.), <https://www.newstree.kr/newsView/ntr202304170013>(2023.04.20. 검색)



6) 철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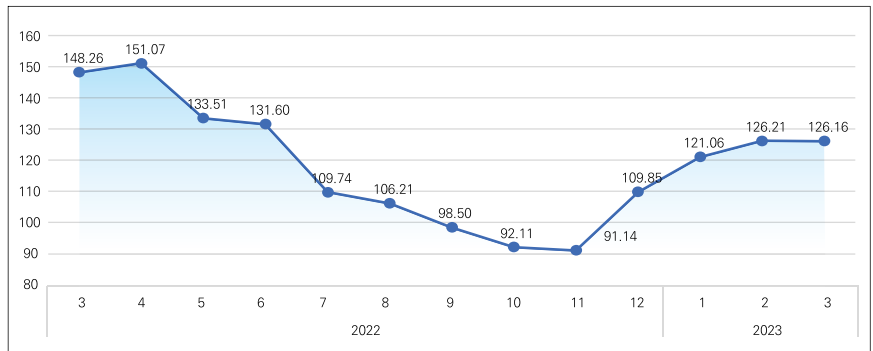
① '23년 3월 철광석 가격 전년 동월 대비 14.9% 감소한 126.2달러 기록

» '23년 3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기준)은 톤당 126.2달러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14.9% 감소

- '2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철광석 가격이 미국의 금융 불안 여파로 정체되는 모습을 나타냄

철광석 가격 추이

(단위: 달러/톤)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48.3	151.1	133.5	131.6	109.7	106.2	98.5	92.1	91.1	109.9	121.1	126.2	126.2	0.0	-14.9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2023.04.15. 검색)



② 철광석 가격 하락으로 철강사 원가 부담 경감⁴⁴⁾

- »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여파로 한 차례 꺾인 철광석 가격이 크게 반등하지 않아 국내 철강제조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소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
- 3월 31일 기준 철광석 가격은 톤 당 123.5달러로 전주 대비 0.8달러 증가했지만 2월 평균 가격인 126.2 달러 대비 감소한 수치임
- 철광석 가격은 중국의 건설 인프라 부문 투자 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최근 금융 불안 확대 및 국내 수요 산업 부진 등으로 하방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44) 철강금속신문(2023.04.05.), <https://p.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022>(2023.04.15. 검색)

»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에 따른 하방압력이 당분간은 작용될 것으로 전망



7) 기타광석

① 3월 기준 광물종합지수는 3,089.70으로 전월 대비 4.0% 하락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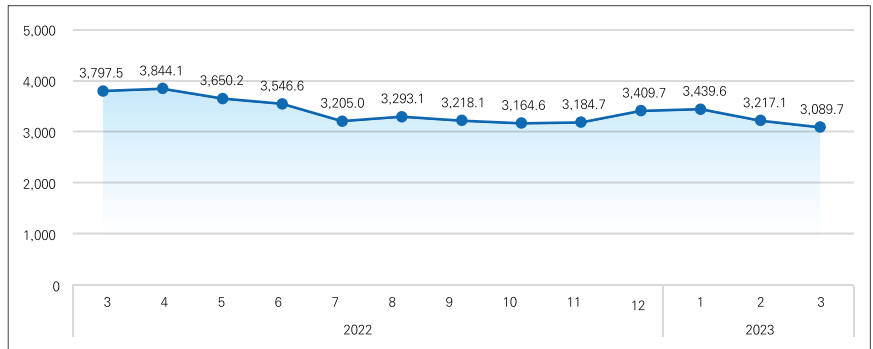
» '23년 3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4.0%, 전년 동월(18.6%) 하락한 3,089.7을 기록함

-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등 주요국의 금융불안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기피로 가격 하방압력이 발생함
- 다만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와 중국의 경기회복 기대로 하방압력이 일부 상쇄되는 것으로 분석됨

45)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res.net/komis/trend/strategy/resources/trendRead.do?se_cd=157\(2023.04.24.검색\)](https://www.kores.net/komis/trend/strategy/resources/trendRead.do?se_cd=157(2023.04.24.검색))

(단위: 달러/톤)

광물종합지수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지수	3,797.5	3,844.1	3,650.2	3,546.6	3,205.0	3,293.1	3,218.1	3,164.6	3,184.7	3,409.7	3,439.6	3,217.1	3,089.7	-4.0	-18.6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억원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② 한-캐나다,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⁴⁶⁾

» 산업통상자원부는 캐나다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광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 4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캐나다 의회 대표단은 만남을 갖고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핵심광물 업무협약의 조속한 체결, 양자·다자외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함
- 특히 핵심광물 협력 등 에너지 분야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석탄, 철광석 등 범용 광물 위주의 교역을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 위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함
- 캐나다는 티타늄 생산 2위, 코발트 4위, 니켈 6위 등 핵심광물 주요 생산국으로서, 캐나다와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③ 美,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 규정 세부지침 발표⁴⁷⁾⁴⁸⁾

» 미국 재무부는 지난 31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 규정 세부지침을 발표함

- 4월 18일부터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하고,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전기차에만 현행 보조금 7,500달러(약 978만 원)를 지급하기로 함
-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양극재, 음극재 또한 이번 핵심광물에 포함됨
- 국내 기업은 세계 고급 전기차 대부분이 장착하고 있는 삼원계(NCM) 배터리에 사용되는 양극재, 음극재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삼원계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때문에 국내산 양극재와 음극재를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주목해 왔음
- 다만, 최근 광물 협정을 새롭게 맺은 일본과 유럽연합(EU) 등도 ‘FTA 체결국’으로 인정함에 따라 향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둘러싼 주요국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됨

46) The Report(2023.04.10.),<https://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63>(2023.04.13. 검색)

47) 동아일보(2023.03.31.),<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30331/118625799/1>(2023.04.06. 검색)

48) 전자신문(2023.03.31.),<https://www.etnews.com/20230331000240>(2023.04.04. 검색)



8) 목재

① 산림청, '21년 기준 산림산업조사 시범조사 결과 발표⁴⁹⁾

- » 산림청은 산림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산림산업조사(시범)를 실시한 결과, '21년 산림산업 전체 매출액은 161조 원(사업체 16만 개, 종사자 61만 명)으로 조사됨
- '22년 산림산업조사는 올해 실시할 본조사에 앞서 시범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산림산업 특수분류에 따른 5개 대분류, 130개 세분류별 사업체 등록자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함
- 산림산업이란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 이용에 관한 경제적 활동 결과와 이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하며, 산림청은 '20년 '산림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이러한 산림산업들을 130개 세분류로 새롭게 제정함
- 산림산업 특수분류 제정 전 산림산업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4개 분류(영림업, 벌목업, 임산물채취업, 임업서비스업)로 규정되어 목재산업, 산림휴양 등의 다양한 산림산업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시범조사 결과, '21년 국내 산림산업 사업체는 16만 개, 종사자 61만 명, 총매출액 161조 원으로 나타남
- 6개 대분류에 의한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산림산업 매출액은 '임산물 도소매, 운송 서비스업' 분야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으며, 임산물 가공·제조업이 뒤따름
- 산림청은 향후 산림산업조사의 통계 품질을 고도화하여 정책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국가승인통계 지정 등 행정절차를 통해 신뢰성 있는 통계를 작성할 계획임

49) 산림청 보도자료(2023.04.13.),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3182132&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1&searchtitle=title&searchYrcli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3.04.13. 검색\)](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3182132&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1&searchtitle=title&searchYrcli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NKFS_04_02_01&orgId=(2023.04.13. 검색))



9) 고철

① 올해 1분기, 고철 수입 감소 및 수출 급증⁵⁰⁾

» 국내 제강사의 고철 소비 감소로 1분기 고철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7.9% 감소, 수출은 106.7% 증가함

-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국내 제강사의 고철 소비 감소 추세로 인해 고철 국내 구매와 수입이 감소했으나, 이에 따라 수출이 급격히 증가함
- 수출된 고철 실적은 인도(+187.6%)와 태국(+107.4%)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고 중국(+43.9%)과 일본(+22.8%)도 증가세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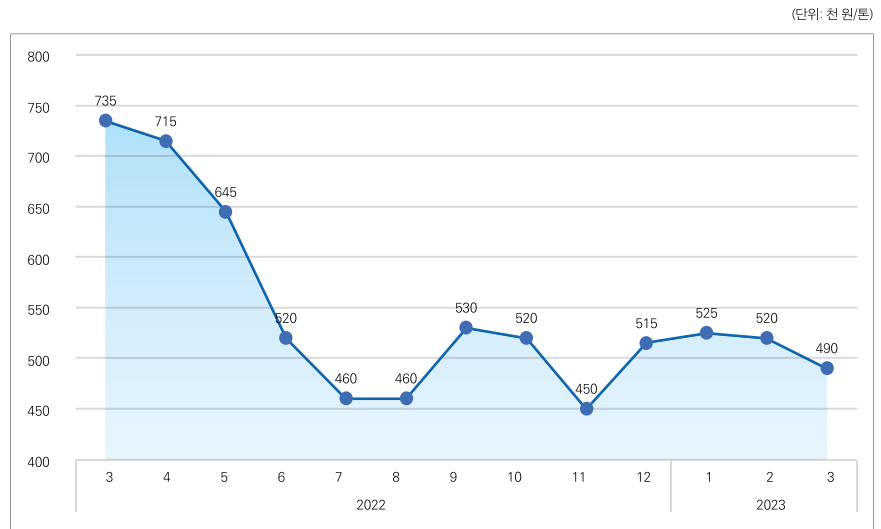
50) 철강금속신문(2023.04.19.),<http://pdf.snmnews.com/PDF/REAL/2023/04/19/P5010419010100301B0002.pdf>(2023.04.21. 검색)

② 3월, 국내 고철 가격 소폭 하락

» 국내 3월 생철 가격은 전월 대비 6.1%, 전년 동월 대비 33.3% 하락한 톤당 49만 원을 기록함

- 3개월간 50만 원대 초반을 유지하던 생철 가격은 철강 수요 감소로 인해 다시 하락함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생철	735	715	645	520	460	460	530	520	450	515	525	520	490	6.1	-33.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③ 러시아 고철 수출 쿼터 올해 말까지 연장 가능성 대두⁵¹⁾

» 러시아 산업부는 오는 6월 종료 예정이던 고철 수출 쿼터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남

- 러시아는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지역 외 고철 수출 규모를 상반기까지 60만 톤으로 제한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남부권 제강사 지원을 위해 최근 수출 가능항구도 제한하여, 올해 말까지 EAEU 지역 외 고철 수출 가능 항구를 발트해와 극동, 북부 등 일부 지역으로 제한하는 법령을 발표함
- 이에 따라 기존 러시아 고철 수출의 20%를 차지하던 툴리아티, 로스토프나도누, 비보르크, 로모노소프, 나훗카 항구에서 수출이 금지됨

51) 철강금속신문(2023.04.12.), <http://pdf.snmnews.com/PDF/REAL/2023/04/12/PS010412010100301B0001.pdf>(2023.04.13. 검색)



10) 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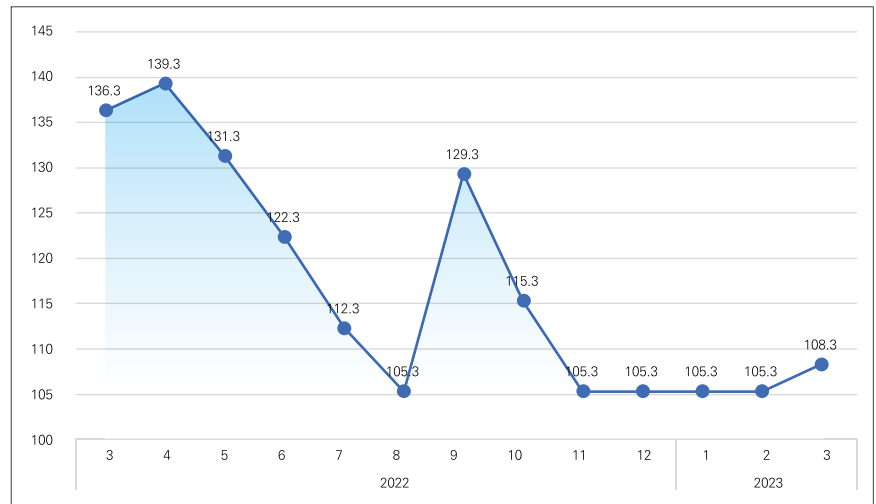
① 국내 열연코일 가격 소폭 상승

» 열연코일(3.0×4×8mm) 가격은 전월 대비 2.8% 상승, 전년 동월 대비 20.5% 하락한 108만 3천 원을 기록함

- 국내 수요 부진으로 4개월간 약보합세를 기록한 열연코일 가격이 소폭 상승세를 나타냄

(단위: 만 원/톤)

열연코일 연간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열연코일	136.3	139.3	131.3	122.3	112.3	105.3	129.3	115.3	105.3	105.3	105.3	105.3	108.3	2.8	-20.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② 에너지용강관 제조업계, 작년 사상 최대 매출 기록⁵²⁾

» 세아제강, 휴스틸, 넥스틸 등 에너지용강관 제조사의 '22년 총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2%, 영업이익은 15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국이 에너지 확보를 위해 설비 구축을 강화함에 따라 강관 수요가 증가하였고, 북미 에너지용강관 시장의 회복 등으로 수출 호조가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으며, LNG 수송용 선박 등 조선항 판매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미국의 철강 보호무역주의로 미국 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급등한 에너지 비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물량의 수입 금지, 타국 철강재에 대한 관세 및 쿼터 부과 정책에 따른 수입 물동량 감소로 미국 내 강관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도 매출 증가의 원인으로 파악됨

52) 철강금속신문(2023.04.17), <http://pdf.snmnews.com/PDF/REAL/2023/04/17/PS010417010100601B0001.pdf>(2023.04.21. 검색)



11) 자동차

① 3월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16만 5,851대로 전년동월 대비 19.6% 증가⁵³⁾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3월 내수는 '21년 3월(17만 대) 이후 최대로 판매되며, 반도체 수급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9.6% 증가함

- 국산차는 전년 동월 대비 26.7% 증가하였으며, 수입차는 9% 감소함
- 친환경차 판매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가 동반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32.2% 증가한 5만 1,717대를 기록하였으며 친환경차는 전체 자동차 판매의 31.2%를 차지함

» 수출은 미국, 유럽 등 주요시장 수출 호조와 더불어 기저효과로 전년동월 대비 48% 증가한 26만 2,341대 수출하며 완성차업체 모두 두자릿수의 플러스 실적을 달성함

- 수출액은 주요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SUV 등 고단가차량 비중 증가와 동시에 고효율 효과로 역대 최초 60억 달러를 돌파한 65억 달러를 기록함
- 전체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지난달 76억 달러로 1위 달성에 이어, 3월 또한 반도체 산업 86억 달러(-34.5%)에 육박하는 85.8억 달러를 달성함
- 친환경차 수출은 전기차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며 전년 동월 대비 79.5% 증가한 71,781대이며, 전체 자동차 수출의 27.4%를 차지함

» 생산은 반도체 수급 개선으로 생산 여건이 개선됨과 더불어 글로벌 신차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며 전년 동월 대비 35.6% 증가한 40만 9,806대를 생산하였으며, '17년 3월(40.7만 대) 이후 6년 만에 월 생산 40만 대를 달성함

53)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 (2023.04.17.),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81&menu_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3.04.19. 검색\)](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81&menu_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3.04.19. 검색))

(단위 : 대, 백만 \$, %)

'23. 3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률		
	연간	3월	1~3월	2월	3월	1~3월	전월비	전년 동월비	1~3월
내수	1,684,113	138,648	372,872	146,983	165,851	429,474	12.8	19.6	15.2
(국산차)	1,384,722	111,065	308,125	125,238	140,748	366,501	12.4	26.7	18.9
(수입차)	299,391	27,583	64,747	21,745	25,103	62,973	15.4	-9.0	-2.7
수출	2,300,333	177,268	522,964	223,156	262,341	684,009	17.6	48.0	30.8
(완성차 수출액)	54,096	3,971	11,865	5,597	6,518	17,099	16.5	64.1	44.1
(부품 수출액)	23,318	2,174	6,013	2,016	2,059	5,801	2.1	-5.3	-3.5
생산	3,756,491	302,156	837,186	347,707	409,806	1,064,249	17.9	35.6	27.1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3.04.17.),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81&menu_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3.04.19. 검색\)](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81&menu_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3.04.19. 검색))

12) 잡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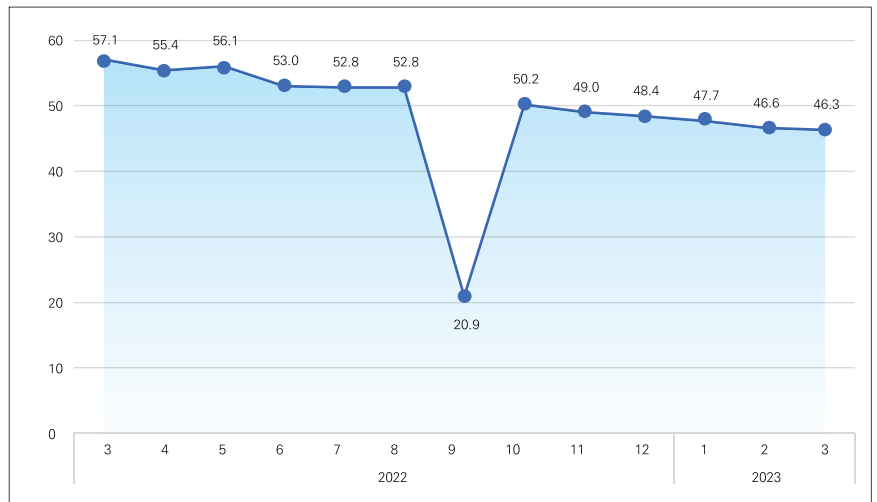
① '23년 3월 ISM(미국 공급자관리협회)의 PMI 지수 '20년 5월 이후 최저치인 46.3 기록⁵⁴⁾

» 신규주문(47→44.3)과 고용(49.1→46.9)이 지난달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생산지수도 전월대비 0.5p 감소한 47.3을 기록하였으며 공급자 운송(supplier deliveries)지수도 '09년 3월 이후 최저치인 44.8을 기록하였음
- 경기둔화 국면에서도 감소하지 않던 고용지수의 감소는 금리상승과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가 기업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음을 시사함
- 전문가들은 4월부터 늦여름 까지 5개월 연속으로 공장제조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함
- ISM의 PMI 지수는 제조업체 구매담당자가 느끼는 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 신규주문, 생산, 고용 상태, 물가 등을 종합하여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과해 수치화함
- 이후 경제를 파악하는 선행지표로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 미만은 경기의 축소를 의미함

54) Trading Economics (2023.3.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3.3.17. 검색)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PMI	57.1	55.4	56.1	53.0	52.8	52.8	20.9	50.2	49.0	48.4	47.7	46.6	46.3	-0.6	-18.9

자료: Trading Econo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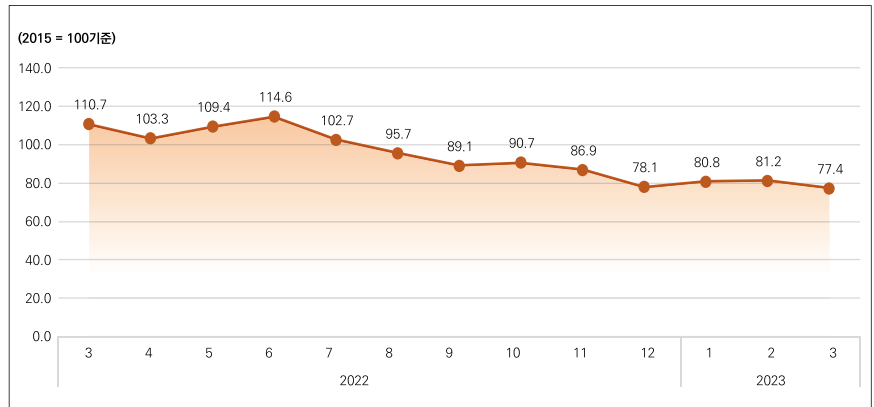
13) 유류

① 3월 국제유가, Dubai, Oman, Brent, WTI 모두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함

- » 월별 유가는 6월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왔으며, '23년 1~2월 반등 후 하락함
- 급등했던 유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해왔으며 올해 상승했던 유가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됨
 - 다만, 러-우 전쟁에 따른 제재와 중국의 리오프닝, 러시아 및 OPEC+의 추가 감산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시장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임

(단위: US\$/bbl,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110.9	102.8	108.2	113.3	103.1	96.6	91.0	91.2	86.3	77.2	80.4	82.1	78.5	-4.4	-29.2		
Oman	111.1	102.8	108.2	113.3	103.3	97.0	91.0	91.2	86.3	77.4	80.6	82.4	78.6	-4.6	-29.2		
Brent	112.5	105.9	112.0	117.5	105.1	97.7	90.6	93.6	90.9	81.3	83.9	83.5	79.2	-5.2	-29.6		
WTI	108.3	101.6	109.3	114.3	99.4	91.5	83.8	87.0	84.4	76.5	78.2	76.9	73.4	-4.5	-32.2		
평균	110.7	103.3	109.4	114.6	102.7	95.7	89.1	90.7	86.9	78.1	80.8	81.2	77.4	-4.7	-30.1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유가동향 국제유가,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4.14. 검색)



③ 러시아, 서방 제재 대응으로 중국과 관계 강화 및 원유 감산 발표⁵⁵⁾⁵⁶⁾

»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무역 활로를 모색함

-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중국 경제 발전 지원을 위해 석유공급을 늘릴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언했으나, 전문가들은 러시아 인프라 한계로 수출량 증가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1~2월 러시아산 석유 수입량은 194만 b/d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172만 b/d를 넘어섰으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제재로 석유 수출이 제한되면서 석유 수출처를 중국·인도로 변경했기 때문임
- 푸틴 대통령은 '30년까지 중국에 최소 연간 980억 m³ 가스와 1억 톤의 LNG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힘

» 러시아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할인 영향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3월부터 6월 말까지 원유 생산량을 50만 b/d 줄이기로 결정함

- 러시아에 따르면, 이 같은 감산 조치는 자발적이며 OPEC+ 원유생산 협정과는 별개임
- 이번 감산 조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 제재의 일환인 러시아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와 EU 수입 금지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보임
- 러시아는 당초 3월에만 50만 b/d 감산할 것으로 보였으나, 3월 21일 거의 목표치에 도달했으며, 6월 말까지 감산을 지속할 것으로 밝힘

55)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3.22),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3.24.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3.24. 검색))

56)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3.27),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3.31.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3.31. 검색))



④ 미국, 전략 비축유(SPR) 충유에 수년 소요 전망⁵⁷⁾

» 바이든 행정부가 SPR 재구매 계획을 철회하면서 충유에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 미 행정부는 지난해 시장 내 유가 하락을 위해 2.21억 배럴의 SPR 원유를 방출하여 공급량을 증대하고 추후에 원유를 재구매할 계획이었음
- 당초 지난해 10월 유가가 배럴당 약 67~72달러 수준일 때 원유를 재구매하여 비축량을 충유할 계획을 처음 밝히고, 12월 300만 배럴의 원유 구매 요청서를 시장에 발표하여 재구매를 실행할 계획이었음
- 다만 가격이나 품질 조건을 충족하는 제안을 받지 못하여 재구매 계획을 철회했으며, SPR 충유에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 '77년에 처음 SPR을 공급한 미국은 현재 3.72억 배럴의 원유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는 '21년초 비축량 6.38억 배럴 대비 약 42% 감소한 것으로 '83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양임

⑤ OPEC+의 추가 감산 결정으로 미국의 석유생산 증가 가능성 제기⁵⁸⁾⁵⁹⁾

» 사우디 등 주요 OPEC+ 산유국은 4월 2일, '23년 5월부터 12월까지 116만 b/d 추가 감산 조치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 금번 감산은 '22년 10월 OPEC+가 발표한 '23년 말까지 200만 b/d 감산 정책과는 별도의 추가 감산 조치이며, 기존 감산(200만 b/d)를 포함한 OPEC+ 총 감산량은 366만 b/d로 세계 석유 수요의 3.7% 수준임
- OPEC+의 감산은 미국의 석유생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으나, 미국 석유생산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긴축경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증산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음
- S&P Global Commodities Insight는 OPEC+의 감산은 미국이 세계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평가했으며, 텍사스주는 증산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반면, 최근 2년간의 유가가 급등했으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과거처럼 고유가가 석유생산 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며,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연준의 추가 긴축, 장기적으로는 수요 감소 가능성이 있음

57)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3.28),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3.31.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3.31. 검색))

58)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4.03),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4.06.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4.06. 검색))

59)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4.04),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4.06.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4.06. 검색))

60)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4.07),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4.13. 검색\)](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4.13. 검색))

⑥ 영국, LNG 도입 설비 확장 추진⁶⁰⁾

» 영국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하여 새로운 부유식 LNG 인수설비(FSRU)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함

- 영국은 3개의 육상 설비(48Bcm/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LNG 도입설비 확충 여부를 검토하기로 결정함
- 과거 FSRU 설비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당시 FSRU 설비를 운영했던 Trafigura사가 관심을 갖고 있음
- 한편, 영국은 기존 육상 도입설비의 확장도 추진 중인데, 두 육상 터미널의 확장을 통해 연간 도입 가능용량이 현재의 48Bcm에서 59Bcm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Grain 터미널은 '25년을 목표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이며, South Hook 터미널도 작년 11월 확장공사에 필요한 최종투자결정(FID)을 획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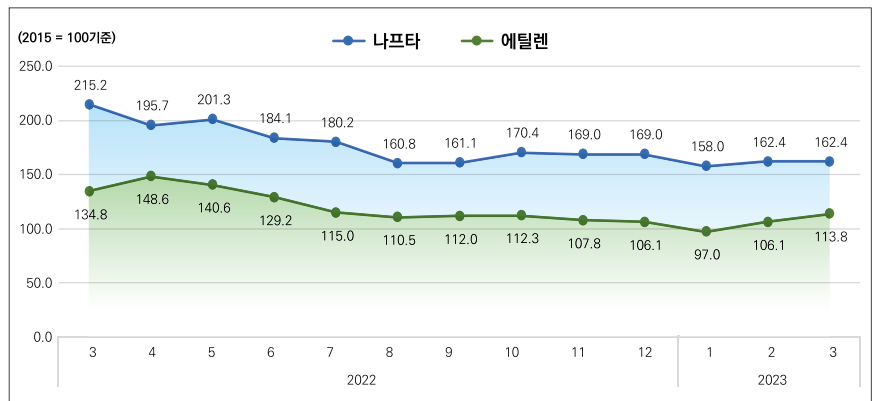
14) 화학공업생산품

① 3월 생산자물가지수, 나프타 및 에틸렌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하락

» 유가 상승으로 동반 상승했던 나프타 및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22년 3월과 4월에 최고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23년부터는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3년부터 생산자물가지수는 나프타가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에틸렌은 상대적으로 큰 상승추세를 보임
- 석유화학공장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업계가 대응하고 있으나 큰 감산은 힘들 것으로 보여 전반적인 물동량은 큰 변화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215.2	195.7	201.3	184.1	180.2	160.8	161.1	170.4	169.0	169.0	158.0	162.4	162.4	0.0	-24.5		
에틸렌	134.8	148.6	140.6	129.2	115.0	110.5	112.0	112.3	107.8	106.1	97.0	106.1	113.8	7.3	-15.6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3.04.24.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3.04.24. 검색))

② 석유화학업계 주요 대기업, 합작회사 청산⁶¹⁾

» 한화, 포스코, 효성 등 주요 대기업들이 20~30년 동안 유지한 합작회사를 청산하고 있음

- 이 같은 청산 배경에는 기업마다 사업의 지향점이 상이하여 합작 관계 유지 유인이 약화됐기 때문으로 보임
-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옛 대림산업 화학부문)은 50:50 비율로 합작한 화학업체 여천NCC를 분할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임
- 여천NCC는 1999년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보유한 전남 여수의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합쳐

61) 한국석유화학협회(2023.03.20.),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614\(2023.03.24. 검색\)](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614(2023.03.24. 검색))

세운 합작사이며, 에틸렌 생산 능력이 연 228만 5천 톤으로 LG화학, 롯데케미칼에 이은 업계 3위임

- 고려아연과 포스코그룹이 합작해 설립한 코리아니켈도 청산 절차를 진행중임
- 코리아니켈은 1987년 5월 출범하여 스테인리스용 니켈을 생산해왔으며, 두 회사는 2차전지용 니켈 사업을 강화하고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청산을 결정함
- 효성과 코오롱도 1974년 국내 유일의 카프로락탐(나일론 원료) 생산업체인 카프로를 통해 공동 경영을 시작했으나, 최근 카프로가 적자를 이어가면서 두 회사는 카프로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에서 '단순 투자'로 변경하면서 사실상 동업관계를 청산함

③ 중국의 석유화학 원료 자급률 확대, 국내 기업 친환경 신사업 강화 계획⁶²⁾

» 국내 석유화학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이 석유화학 원료의 자급률을 높이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 석유화학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이며, 최근 중국은 국가적 정책 목표하에 석유화학 원료의 자급률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확장하면서 국내 석유화학사의 업황 하강 국면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 중국이 석유화학 설비 증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주목적은 자급률 상향이며 '25년 대부분의 주요 기초유분, 중간원료 자급률이 10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임

» 국내 기업들은 친환경 신사업을 키워 수익성을 다각화하여 중국 수출 시장 악재를 돌파할 계획임

- LG화학은 '25년까지 친환경 소재, 전지 소재, 글로벌 혁신 신약 등 3대 신성장 동력에 투자할 계획이며, 롯데케미칼은 수소·전지소재·친환경 리사이클 소재 등 친환경 신사업 투자 계획을 발표함
- 금호석유화학그룹도 '26년까지 탄소나노튜브(CNT),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 등 친환경·신사업을 목표로 '지속성장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포함

④ 석유화학 빅4, 재고자산 6.5조 원 육박, 공장 가동률은 약 10% 감소⁶³⁾

» LG화학과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금호석유화학 등 석유화학업계 빅4의 지난해 재고자산이 6조 5,000억 원을 넘어섬

- 글로벌 경기침체로 석유제품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재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석유화학업체들은 공장 가동률을 조정하며 재고자산 감축에 힘을 쏟고 있으나, 업황이 근 시일 내 되살아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재고로 인한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 62) 한국석유화학협회(2023.03.22),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616(2023.03.24. 검색)
- 63) 한국석유화학협회(2023.04.04),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626(2023.04.06. 검색)

- 석유화학 업종 30개 사의 지난해 재고자산은 30조 6,999억 원으로 파악됐으며, '21년 22조 5,475억 원 대비 36.2%가 증가함
- 특히 빅4의 지난해 재고는 6조 5,393억 원으로 상위 30개 사의 21.3%를 차지함
- '21년은 시장 호조로 증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면서 발생했으나, 지난해 재고는 업황 불안에 공장 가동률을 줄이는 부담을 감수한 생산량이나 판매감소로 증가함
- LG화학 석유화학 부문의 지난해 평균 공장 가동률은 81.4%로 '21년(91.9%) 대비 10.5포인트 줄었으며, 동 기간 롯데케미칼의 가동률은 86%로 전년 대비 8%포인트 감소함
- 한화솔루션과 금호석유화학 등 다른 기업들도 대부분 '21년과 비교해 10%가량 가동률을 낮췄으며, 공장 가동률이 90%대로 회복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여름철 성수기가 다가오지만 가동률을 단번에 5~10% 이상 끌어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시황이 나아진다고 곧바로 가동률을 예전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시장에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제품가격 등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글로벌 경기 상황을 파악하며 1~2%씩 가동률을 늘리며 재고물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함

연구책임자

이기열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최석우 항만수요예측센터 부연구위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3. 4. 28

편집 겸 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